

청탁금지법 ‘선물가 상향’ 유통업체 ‘활짝’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첫 명절에서 광주지역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큰폭으로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11.2% 신장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인상 가액 기준인 10만원 이하 상품의 매출구성비가 43.5%로 전년 대비 5% 늘었으며, 매출도 전년보다 24% 뛰었다.

롯데 광주점 설 선물 판매실적 11.2% 신장

광주신세계, 청과·한우·굴비 등 매출 증가

세부상품별로는 축산 53.5%, 가공·생필 44.4%, 건강 15.2%, 수산 8.7% 각각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 측은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한우·굴비 세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주류(7.5%), 한과

(20.2%), 건과세트(21.6%) 등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부진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11.6%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가 36.5%로 전년(27.4%) 대비 9.1% 늘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청과, 한우, 굴비 등 세트상품의 매출이 증가했다.

세부상품별로는 농산 11.2%, 축산 6.3%, 수산 3.8%, 가공 21.3% 각각 매출이 늘었다. 특히 농산부문에서 청과세트 외 버섯세트와 건과세트가 각각 148%, 60% 신장했다.

백화점 측은 배송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8.4% 감소했음에도 11.6%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10만

원대 이하의 상품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매입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한우세트 등 관련세트를 발빠르게 준비가 주효했다”며 “고객들도 이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실제로 확인된 바, 다가오는 추석에도 이런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선물상품을 기획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통동 기자

금감원,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기

22만개 계좌 해지 1,038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기 캠페인’을 통해 1,038억원

을 환급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최근 6주간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미사용계좌 22만개를 해지하고 1,038억원을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1억 2,800만 계좌) 및 상호금융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4,800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말부터 6주간 은행권 미사용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 은행계좌 95만개를 해지하고 3,706억원을 환급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에 맞춰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기간 중 상호금융권역별 해지 금액은 농협(688억원), 수협(159억원), 새마을금고(156억원), 신협(30억원), 산림조합(4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보,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3기 모집

신용보증기금은 18일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제3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엑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컨설팅·멘토링·기술지원·해외진출 등 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보는 지난해 스타트업 네스트로 총 100개 기업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거쳐 현재까지 신용보증 약 300억원, 직

접투자 19억원을 지원했고, 데모데이 등 투자자 매칭기회를 제공해 민간투자 25억원을 이끌어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망 스타트업 80개를 선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는 신보 홈페이지, 정부 창업통합 포털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및 스타트업 네스트 홈페이지(www.startup-nest.com)에서 할 수 있다.



18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전남쌀 홍보에 나선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임직원들이 귀경객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우리지역 쌀 사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기업·금융 손잡고 ‘지역제품 알리기’

광주·전남농협, 귀경객에 전남·광주쌀 홍보행사

기아차 임직원, 광주터미널 전단지·판촉물 전달

금공과 대기업이 설립한 연휴기간동안 설 귀경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쌀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광주 터미널에서 홍보물과 판촉물을 전달하며 기아차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농협광주·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KTX광주송정역(역장 강병인)에서 설 귀경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쌀을 나누고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전남·광주지역본부, KTX 광주송정역 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라남도와 광주를 대표하는 우수브랜드쌀인 담양 대소밭은 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흥양 수호천사 건강미,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무안 황토랑쌀, 함평 나비쌀, 육천 한눈에반한쌀,

강진 프리미엄호영, 영광 사계절이사는 집, 장흥 아르미쌀, 동강 으뜸쌀, 광주 빛찬들쌀,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도 샘플쌀 3,000여개와 전남쌀 홍보리플렛을 귀경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눠줬다. 소비자들은 우수브랜드 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태선 전남지역본부장은 “향우들이 지역의 우수한 브랜드쌀을 지인들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설 연휴를 맞아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조정협의회 회원과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기아차 알리기에 나섰다.

기아차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5일 기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광주공장 소속 주임, 그룹장, 파트장들로 구성된 생산관리자협의회,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판매를 담당하는 광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이 합동으로 기아차를 알리기 위

한 판촉행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촉행사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 됐으며, 김성안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지점장들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 협의회 강정혁 회장, 파트장협의회 허운수 회장을 비롯해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 고속터미널을 찾아 광주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기아차 홍보물과 물티슈 등 판촉물을 전달하며 기아차를 알리기 위한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공장의 생산 차량인 스포티지, 쏘울, 카렌스, 봉고트럭을 비롯해 기아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호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써 사랑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차량을 생산해 고객 만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부정개혁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개혁위원회 주요 성과를 지방과 공유하고 농정 현장의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지역별 순회 토론회(9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열리는 1차 공청회에서는 충북지역 150여 명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농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농식품부는 9개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종합해 3월 말 개최 예정인 마지막 종합보고대회에서 이를 발표해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해빙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건설현장 40여 곳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1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감독 실시 전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지반·토사 및 가시시설(거푸집 등) 붕괴 등의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조치와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예방조치를 중점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 및 사용,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여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국제선물용품전시회

2,800만달러 규모 수출 상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9일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박사이트)에서 열린 ‘제85회 국제 선물용품전’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중소기업 18개사를 파견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이들 업체는 사흘간 약 600여건의 상담을 통해 2,800만달러(약 307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관 파견업체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중점을 두고 총 18개사 중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또는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 위주로 구성했다.

파견업체는 내수기업의 수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실적 10만달러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 위주로 구성했다.

■ 로또(794회)

당첨번호	6, 7, 18, 19, 30, 38 보너스 13
등위	당첨금액
1등	2,650,940,304원
2등	68,728,082원
3등	1,186,33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346회)

등위	당첨번호
1등	1조 223458
	4조 659796
2등	1조 223457
	1조 223459
	4조 659795
3등	4조 659797
	3등 각조 242568
4등	각조 58782
5등	각조 241
6등	각조 0156
7등	각조 02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건조 용량 14kg 급 건조기를 출시한다.

삼성전자, 국내 최대용량 건조기 출시

이불도 한번에 건조...살균·진드기제거 등 위생관리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건조 용량 14kg 급 건조기를 출시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세탁기보다 건조기 용량이 작아 크기가 큰 세탁물을 한 번에 건조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반영해 기존 9kg 모델 115L 건조용 대비 확대된 207L 건조용을 적용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성능 개선을 통해 많은 세탁물은 물론 겨울철 두꺼운 이불까지 쉽게 건조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건조 기술도 적용됐다. 기존 인버터 저온 제습 방식을 개선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기술이 새롭게 적용됐다. 기술은 초반에 히터로 최적인

도에 빠르게 도달시킨 뒤 인버터 히트펌프로 건조한다.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는 스피드 모드 기준 59분 만에 건조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 영향으로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에코 모드를 사용할 경우 1회 건조 시 164원 전기료밖에 들지 않아 소비자 경제 부담도 줄여 준다.

제품에는 각종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집 먼지 진드기를 완벽 제거하는 ‘에어살균’ 기능이 적용돼 의류·이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출고가는 189만9,000원에서 199만9,000원이다. /서미애 기자

전남정보진흥원-한국지식재산 MOU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이 최근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이사장 황중환)과 전라남도 지식공영형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번 협약은 진흥원이 전남도 내 미취업 청년들의 공공형 일자리 경험제공을 위해 진행 중인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남이 보유한 지식재산 발굴 및 DB구축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남 청년 지식공유사업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남 보유 지식재산 실태조사 및 발굴, 지식재산 분석 및 사업화 모델 기획, 전남 청년 및 기업의 지식재산활용취·창업 모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오창렬 진흥원장은 “지역 역사·문화·향토자원을 잘 축적하고 관리하며, 이를 지식재산으로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지

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민간 일자리로의 취·창업 및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일자리정책실)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난 2월 ‘지식공유 큐레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7명의 지역 청년을 채용한 바 있다. 이들은 전라남도 권역별 향토 지식재산 발굴과 DB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큐레이터’로 활동하게 된다. /유통동 기자